

光日春秋

정 목 일



이 세상에서 나비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을 듯하다. 몸통보다 몇 배가 큰 날개로 춤추듯이 나르는 모습만으로 환상과 행복을 느낀다. 몸 자체가 예술품이다. 형형색색 무늬와 현란한 색채미학, 두 장의 날개는 대칭미의 완성품이다.

나비의 삶은 우아하며 평화롭다. 남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 꽃을 사랑하면서 희망과 미래를 준다. 꽃에게 꿀을 얻는 대신 식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와 씨앗으로 번성과 풍요를 갖게 만든다.

나비는 언제나 무도복 차림새이고 걸음 걸이는 곧 춤이다. 꽃에 다가가 때때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벌과는 달리, 곡선을 그으며 다닌다. 다짜고짜로 꽃 속으로 파고드는 벌과는 다르다. 소리 없이 다가가 꽃에 눈 맞추고 부드럽게 입술을 맞춘다. 오래도록 밀어올 속삭인다.

나비는 꽃의 빛깔을 가장 잘 안다. 꽃의 향기를 가장 잘 맡는다. 나비아말로 빛깔과 향기를 알아내는 기막힌 감각사이다. 신이 보낸 미의 천사, 평화와 사랑을 위한

사자(使者)가 아닌지 모른다. 인간은 나비의 환율한 빛깔과 무늬를 갖고 싶어 한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을 갖길 원한다.

꽃이 어여쁘다고 한들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무료와 슬픔이 느껴진다. 꽃에는

나비가 앉는 모습이야말로 평화와 행복의 표정이다. 유토피아의 구성 요소는 숲과 물, 여기에 꽃과 나비가 있어야 한다. 꽃과 나비는 사랑, 행복, 번영을 상징한다. 약속과 감시의 먹이사슬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생명체의 숙명이며 한계이다. 그런데도 나비만은 살상을 하거나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한다. 꽃가루받이를 통해 식물의 번식을 도모함으로써 생명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가장 연약하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나비는 모든 종(種)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타고 난 예술가이다. 나비가 꽃에서

꿀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일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삶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

꽃은 열매와 씨를 맺고, 열매와 씨는 다시 대지에 생명을 되운다. 속씨식물은 동물을 유혹해 자기 씨를 멀리 퍼뜨리게 하려고 당분과 단백질 생산해낸다. 그 덕에 세상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온혈동물인 포유류가 번성할 수 있다.

꽃이 없었다면 인간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꽃의 종류를 엄청나게 늘리고

나비의 삶

꽃씨를 세상 곳곳으로 퍼뜨렸다. 그 대가로 과일과 씨앗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했으며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었다.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꽃과 나비의 사랑과 공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비가 꽃에 앉았 꿀을 빠는 모습과 다른 곤충이나 동물이 먹이를 취하는 모습은 판이하다. 살기 위한 본능으로 약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아 먹는 모습과는 달리, 날개를 접은 채 미풍도 하지 않는다. 꿀을 빨면서 꽃과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기도 하다. 기상학에서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기상학이 아닌 생태학에서도 나비의 날개 짓은 부드럽고 미약하지만, 인류와 전 생명체의 삶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도움을 준다.

나비의 모습과 삶을 경이로 눈으로 바라본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나비 같은 삶을 가질 수 있을까. 나비처럼 모든 관계와 삶에 이로움과 축복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비처럼 경쟁, 대립, 갈등, 시기, 모함 없이 사랑과 평화의 삶을 가질 수 있을까.

가끔 한 사람의 좋은 삶, 작은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 큰 힘이 되는 것을 본다. 말없이 쓰레기를 주는 사람, 자신의 처지가 딱한 데도 이웃을 돕는 사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부자는 빈자를 위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위해, 건강간 사람은 병약한 사람과 장애자를 위해, 스스로 베풀고 봉사한다면 '나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선행 하나씩으로 사랑의 등불을 켜면, 서로서도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는 나비의 삶을 취할 수 있다. <수필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주·전남 사립대 '경영 부실' 방치할 건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06 전국 188개 사립대학 결산경영실태' 결과는 광주·전남 사립대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역 사립대 대부분이 재무와 교육투자 2개 부문 21개 지표로 나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경영부실'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중상위권인 B등급 대학은 4곳이었고 A등급의 상위권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마디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교수 연구비 지원 등 교육투자에서 인색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사립대의 경영부실은 지역의 앞날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사립대의 근본위기는 학교가 넘치는 대신 학생은 부족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임시철마다 교수들이 일선 교고를 돌며 신입생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재단의 전입금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주요 대학 4곳이 재단 전입금 한 푼도 없이 운영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두자리수에 달하는 대학도 2곳이다. 재정편향이 어렵다 보니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수 연구비 지원액 등이 수도권의 A급 대학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역 사립대는 각성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257만명의 대졸자가 백수로 빈둥거리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이 부실해선 어느 누가 취업률이 낮은 지방 사립대에 원서를 쓰려고 하겠는가.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역 사립대는 재단의 투자를 늘리고 자구책을 수립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고리를 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 사립대의 위기를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락가락' 중부세 개편안 재검토해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상위 2%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역시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수도권 '상위 2%'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정책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당정협의까지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일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따가운 국

민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 그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나머지 국민들의 재산세 증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부세 감소분이 재산세로 전가되더라도 서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부세 수입으로 지난해 각각 687억원과 2천24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왔으나 중부세 개편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강부자'보다는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세금 폭탄'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상위 2%'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부세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재 인

스위트 스팟(Sweet Spot)은 스포츠 분야에서 나온 용어로 야구 배트나 테니스 라켓 등이 공을 맞힐 때 특별한 힘을 가지지 않고도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부분, 즉 공을 맞히는 최적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기업에 대한 친밀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인 소비자 심리 타점을 일컫기도 하고 건축에서는 콘서트홀과 같은 곳에서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를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 건축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스위트 스팟은 단순히 적절한 위치라는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번 북경 올림픽에서 이승엽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서트홀의 경우 무대 쪽 전편의 경사진 측면은 천장처럼 완벽한 반사재를 선택한다. 중간과 후면의 측면에는 보통 사각뿔 형태의 구조물을 벽체의 중간높이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설치하여 음을 확산시킨다. 콘서트홀의 맨 뒤쪽 벽은 유해한 에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은 주파수에 걸쳐 흡음성을 가지도록 처리한다. 이것으로 최적의 소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콘서트홀은 필연적으로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극장이나 음악당을 가면 우리는 폭신한 천으로 된 의자에 앉게 된다. 모르는 사람

귀가 열리는 자리, 스위트 스팟

선수가 친 홈런들을 생각해 보라! 체구가 큰 서양의 야구선수들과 달리 이승엽 선수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스윙으로 손쉽게 홈런을 만들어내어 우리 한국 팀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바로 이승엽 선수의 배트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작용과 반작용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위치에 맞게끔 궤적을 그리며 회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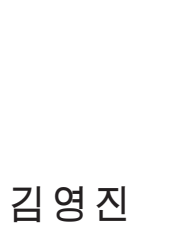
건축음향설계에서도 이승엽 선수의 배트에 맞는 공처럼 소리가 가장 잘 반사되는 위치들이 있다. 음향설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음원에서 전해지는 직접음을 듣는 것일 수 있지만 실내공간이 되면 이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상이다. 과거 그리스의 극장들이 다 외부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둥 하나만 세워도 벌써 멋진 가수의 목소리를 감아 왜곡을 시키는데 벽이랑 천장까지 생기면 진정한 라이브의 모미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음향설계를 할 때 벽이나 천장에 반사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객석 전체에 충분한 음압을

들은 관객들이 편하게 앉아 감상할 수 있게 쿠션을 넣어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이 없을 때 의자의 바닥이 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들려져 있는 의자의 바닥은 흡음을 위해 타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자를 천과 쿠션으로 만든 것도 같은 이유이다. 만일 이 의자들이 소리를 반사하게 되면 멋진 소리를 귀에 닿기 위해 공돌인 천장과 벽이 아무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장과 벽 그리고 의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조화로운 역할을 조금만이라도 못한다면 그 공연장은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에서 나오는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이승엽 선수는 멋진 홈런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을 찾기 위해 하루에 천 번의 스윙을 연습한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적의 음향을 위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는 건축가의 일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어린이건축교실 운영위원)

기 고



김 영 진

“우리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지난 9월 3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역의회의장, 지역의 대학 총장, 교육감, 광주시의사회장, 주요 의료기관장 등은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광주·전남 공동유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와 같이 사업유치 결의를 다졌다.

첨단의료 융·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상품화 등을 위한 응용개발연구 중심단지로서 향후 30년간 약 6조원이 투자되는 정부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산업이 된 지 오래고, 의료관광을 통해 수출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 첨단의료 융·복합단지는 의료기기 개발, 의약품 개발, 의료서비스 분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분야는 첨단지구의 광산업 클러스터와 결합하고, 신약개발은 의생명융합센터, 백신센터 및 화학전신대학 교병원이 있는 화순군과 연계하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남구의 노인건강타운과 나주혁신도시를 묶어서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으로 특화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기본방안에 전 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을 축으로 인근의 재개발지구 소규모병원을 유치, 집적화하고 의료기구나 건강물품을 체형하며 사고 팔 수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유치 가능하다

반으로 발돋울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의료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동일 투자액을 기준으로 일반 제조업의 2.6배, 정보통신업의 3.2배라고 하니 차세대 고용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된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따르면 강원권의 발전 전략으로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산업이 선정되어 광주·전남의 사업유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새롭게 접근한다면 유치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광주·전남의 자연과 환경이 의료에 최적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풍부한 일조량과 온난한 기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은 큰 장점이다. 현재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을 보더라도 휴양지 같은 온화한 기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둘째, 광주·전남은 첨단의료 융·복합

있는 헬스타운을 건설한다면 공동화로 고심하는 광주 도시에 활력을 가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셋째, 첨단의료 융·복합단지에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메디컬 아카데미까지 추가하였으면 한다. 현재 의료 인력은 수도권 불균형 상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의료관광을 유치하려면 양질의 의료와 의료기관의 국제 인증, 외국인과의 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국어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 양성에 메디컬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지역대학에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낸다면 의료산업을 통해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아무쪼록 광주·전남이 첨단의료 융·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지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의 의료산업이 발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남대학교병원장)

중국인 대리모 브로커 활개...관련 법 정비 절실

일본 불임부부들이 한국 유명 여자대학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대리모를 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베이징에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중국에 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노골적으로 대리모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문번호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4천 위안(500만원)이면 초·중학교 학력에 응모가 보편적이며 10

만 위안(1천200만원)이면 학력·외모 등 조건 매우 좋은 여성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가이드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가 아닌 성 관계를 통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연 임신이 주로 이용된다고 한다. 아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윤리, 성 윤리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자 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리모 관련 법규는 없다고 하니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중삼·광주시 동구 호남동

등산로 정비보다 뿌리 드러낸 나무 보호가 먼저

무더운 여름동안 필자가 다니는 동네산은 등산로 개보수와 운동기구 설치로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웠다. 등산로에 나무계단을 만들거나 운동기구를 설치하기에 앞서 비에 휩쓸려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을 보호해주는 일이 더 시급해 보였기 때문이다. 등산로에 나무계단을 만들고 운동기구를 세우는 일은 쉽게 눈에 띄고 생색이 나는 일

이지만 산에 개토를 해서 뿌리를 드러낸 나무를 보호하는 일이나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일은 어쩌면 표가 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 숲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 등산로를 가꾸었다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넛 독자·msk6799@hanmail.net

無 等 鼓

'가뭇 물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이 있다. 가뭇이 아무리 심해도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흉수가 나면 모두 씻겨가 남는 것이 없고 인공피해도 엄청나다는 의미다.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는 속담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홍수 피해를 겪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 부족으로 가뭇이 시달려왔다. 홍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높을 때문이었을까, 지난 30여년간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홍수 예방 및 피해 방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강에 홍수통제소가 설치돼 전문적인 홍수관련 방

생하는 홍수와 가뭇의 경제적 피해를 조사했다니 가뭇으로 인한 피해가 홍수에 비해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 3분의 1이 사막으로 변하는 등 더치열한 장마에 대가물이 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가을답지 않은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남부지역 가을 가뭇이 심각하다. 올해는 경우 부족으로 가뭇이 시달려왔다. 홍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높을 때문이었을까, 지난 30여년간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홍수 예방 및 피해 방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강에 홍수통제소가 설치돼 전문적인 홍수관련 방

가을 가뭄



수가 검토되고 있다. 가을 가뭇이 지속될 경우 김장 배추 등 채소류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힘든 판에 겨울철 양식인 김장조차 마음 놓고 담갈 수 없다면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 2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